



◀ 충남 청양지부 사무실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청양지부 박종녀 이사, 이창영 이사, 정덕희 부지부장, 최명복 지부장, 유영분 간사, 강민희 총무

부부동반 행사 참여로 화목하고 역동적인 충남 청양지부

취재 : 정재은

충남 청양지부(최명복 지부장, 47세) 회원들은 서로 동반자라는 의식 아래 의견교환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현안들에 대해 대처해 나가고, 다양한 행사와 친목대회를 통해 정을 쌓고 단합해 나가고 있다. 연초 대보름에 윗놀이 대회를 개최하고, 모범회원 시상과 함께 청양군 등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또한 청양지부는 매년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청양군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행사를 회원들뿐만 아니라 양돈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 '양사모'를 통해 부부동반으로 참여함으로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더욱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지부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한편 청양지부는 분뇨수거차량 2대로 분뇨를 수거하고, 경종농가에 총 4천톤 규모의 액비탱크를 설립해 놓고 액비를 공급하는 축분(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분뇨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밖에 백신 냉장고를 마련해 놓고 청양지역 양돈농가에 관급백신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양지역 양돈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청양지부

1980년대 초부터 양돈업을 해오던 농가들간에 친목도모를 위해 청양군 양돈인 모임이 이

루어져 오다가 1990년 2월에 정식으로 청양지부가 설립되고 5월 15일 승인되었다. 현재 청양지역에서 100두 이상 규모 50여 농가가 4만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29명이 지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회원들은 3만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회원들의 평균 사육두수는 1,500두 수준이지만, 내실 있는 경영으로 우수한 성적이 나타나고 있다.

임원은 현재 제7대 최명복 지부장을 중심으로 정덕희 부지부장, 권영철 감사, 강민희 총무, 지역별로 황충익·배용식·윤종우·유승종·복인한·김근배·김태길·박종녀·이영자·전창희·이창영·박이교 이사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양지부는 축분유통센터 운영, 백신 공급 등의 사업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회원들은 각종 회의나 행사를 통해 의견 교환을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양돈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 '양사모'가 있어 다양한 행사에 회원 부인들이 함께 참여해 나가고 있다.

한편 청양지부는 회원들로부터 월 1만5천원의 회비와 대전충남양돈농협 축산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협회에 대한 관심 증대를 이끌어 내는 각종 행사 개최

청양지부는 다양한 행사 전개를 통해 협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양돈을 하는데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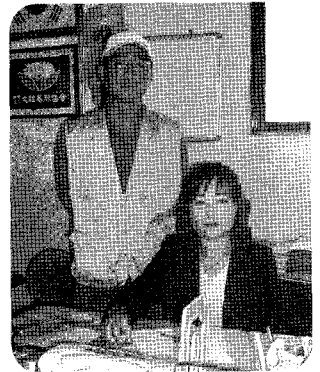
매년 정월 대보름에 윗놀이 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년 성적을 기준으로 모범회원에 대해 시상과 함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성적 향상을 유도하며 다른 회원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청양군 등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증정 등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국제축산박람회나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



▲ 충남 청양지부 최명복 지부장

시회, 양돈지도자 연수회 등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매월 12일을 전후로 월례회의가 개최되어 회원들은 현장의 문제점과 양돈현안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분기별로 세미나가 개최되어 사양관리 등 신기술을 배우는 등 필요한 정보습득과 교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청양지부 강민희 총무(좌측)와 유명분 감사

축산인 체육대회, 무료시식회, 불우 이웃돕기 등을 통해 함께 사는 사회 실천

청양지부는 관련 단체 및 주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매년 11월을 전후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전개한다. 2002년 문화체육센터 광장, 2003년에는 청양군청 광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전·후지 등 수출부위를 이용한 요리를 선보임으로써 돼지고기 수출부위 소비촉진과 불균형 소비문화 개



● 청양지부는 11월을 전후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를 전개한다. 위 사진은 2002년 11월 27일 청양군 문화체육센터 광장에서 개최된 무료시식회 장면



● 9월 13일 청양군 공설운동장에서 청양군과 청양축협 후원으로 양돈협회, 한우협회, 양계협회, 낙농협회 회원들이 모여 청양군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청양지부 양돈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 '양사모' (회장 최동분)가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효율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가운데쯤 위치한 제일 키 큰 사람은 청양군청 농림과 김의환 과장.

질병 발생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다른 축산단체와 단결을 하고, 축산관련 문제에 대해 공동대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모든 행사는 '양사모'와 함께 효율적으로 진행

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연말이 되면 청양군 사회복지계에 돼지고기를 기증하는 등 불우이웃에 돕기에 동참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돼지고기 300kg이 소년소녀가장, 각 읍·면 사회단체에 전달이 되었다. 아울러 지난 3월 폭설로 위기를 겪게 된 회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한편 올해 9월 13일 청양군 공설운동장에서 청양군과 청양축협 후원으로 양돈협회, 한우협회, 양계협회, 낙농협회 회원들이 모여 청양군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앞으로 구제역이나 돈열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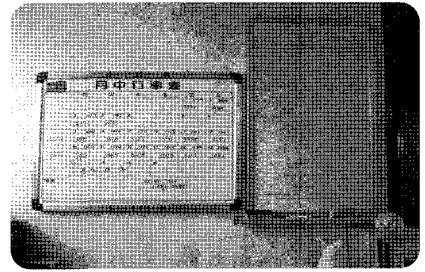
청양지부에는 양돈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 '양사모' (회장 최동분)가 있어 다양한 행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양사모'는 여자회원들과 회원 부인들 22명이 모여 2003년 5월에 결성한 모임으로,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여 양돈에 관한 지식을 얻고 있으며,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시식회 및 체육대회 등 행사 준비를 열정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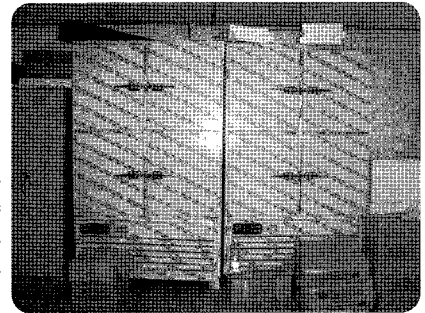
청양지부는 이처럼 양사모 중심의 부부동반으로 각종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회원들뿐만 아니라 부인들의 동참을 유도해 지부를 더욱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속감을 높여주고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어 합심하고 화기에애한 분



▲ 회원들은 각종 회의나 행사를 통해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최명복 지부장, 이창영 이사, 박종녀 이사, 유영분 간사, 유승종 이사



▲ 청양지부에서는 월중행사표와 돈가현황표에 각종 행사 일정과 매일의 지육시세를 게재해 놓고 있다.



▶ 청양지부는 백신 냉장고를 마련해 놓고 청양 지역 양돈농가에 관급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축분(액비)유통센터 운영과 관급 백신 공급

청양지부는 축분유통센터 운영을 통해 회원들이 분뇨를 처리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분뇨수거차량 2대(6.5톤, 8톤)를 이용해 분뇨를 수거하고 있으며, 경종농가 및 고추농가와 계약을 하여 액비를 공급하고 있다. 액비 탱크는 경종농가에 4천톤 규모(평균: 200톤 탱크 2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회원들은 분뇨 발생량의 50% 수준을 축분(액비)유통센터를 통해 처리를 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백신 냉장고를 마련해 놓고 청양지역 양돈농가에 관급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돈열, 일본뇌염, TGE Rota 등 청양군에서 관급백신이 나오면 농가에 신속히 연락을 취해 적절한 시기에 백신이 공급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모돈두수에 비례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백신공급은 청양지역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협회가 되어야

최명복 지부장은 “청양지부의 경우 부부동반으로 행사를 수월하게 처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들은 단합하여 대처해 나가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협회는 양돈인들을 대변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지부와 회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액비 지원사업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액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녀 이사는 “분뇨관련 문제는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원활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만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양돈**